

30일 추경 처리...내달 8·9일 '서별관 청문회'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국회 일정 등 극적 합의 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 포기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

내달 26일부터 국정감사

여야 3당은 오는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30일 만이다. 다음달 8~9일에는 조선해운업 청문회를 열고, 이어 9월 26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도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3당 원내지도부의 협상에 앞서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재가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합의서 가인이 나오자 의총을 열어 합

의를를 추진했다.

여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하는 조건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증인대에 세우지 않는 대신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로 카드를 맞바꾼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26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산소위를 마친 추경안은 30일 예결위 전체회

의를 거쳐 9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기재위원회와 정부위원회 연석회의 방식으로 내달 8~9일 열린다. 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계속 논의되더라도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내달 5~7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하고, 청문회 증인 명단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도 잠정 결정했다. 여야는 내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이어 20~23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시정연설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선해운

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 등 시급한 민생경제 처방전 마련의 공감대 속에 원만한 추경안이 타결됐다"며 "이번 타결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에 서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리게 돼 그나마 다행으로, 과잉집안을 제대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은 우리당이 제안했고, 합의를 이루는데도 우리당이 양보를 했다"며 "국민의당 안이 채택됐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혈세와 노동자의 눈물보다 친박 청문회 증인 보호에 더 우선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도부 禹 감싸기 비박계 '부글부글'

친박(친 박근혜)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우병우 감싸기'에 비박(비박근혜)계 진영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갑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이정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어색하다"며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날에는 당권에 도전했던 주호영 의원은 전날 "우 수석 문제는 이기고도 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중립 성향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우 수석이 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정한 대표는 진상이 우선 규명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을 향한 비판이 계속되자 전날 "비가 익고, 과일이 익는 것은 해, 구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작용을 한다"며 여러 경로로 여론을 전달한다는 입장을 역설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인사권자가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며 "박 대통령은 문제 있는 사람을 감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커질 경우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조위 농성장에서 특조위 관계자들(아래)로부터 특조위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쓴소리만 들은 더민주 장외 투쟁

초선 28명 청와대 앞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촉구 성명

유족들 "특별법 개정부터"... 일부 여의도 당사 점거 농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8명이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 연장을 촉구하며 장외로 나왔지만 유족들로부터 '쓴 소리'만 들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유족들이 단식 중인 광화문 농성장까지 행진했다. 표창원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행동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니 장외투쟁이라 하고, 국민을 대변하려 하니 강경 세력이라 한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대통령께 제발 약속을 지켜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에 세월호 유족 측과 제대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탓에 일부 유족은 여의도 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농성장에 남은 유족들은 의원들에게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야당이 20대 총선 뒤 일정한 세를 얻어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상을 좀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협상으로 될 게 아니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 법 개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조위의 다른 관계자는 "여러분이 집 토끼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이 지금 더민주가 특별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은 여당 의원이 아니다. 대선이 끝난 후 여당 의원 될 거라 착각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기라운지

장병완, 대촌동 노화연구시설 예산 170억 확보

광주 남구 대촌동에 노화연구 전초기지 성격으로 추진 중인 '고령동물 생육 시설 및 노화연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25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고령동물 생육시설 및 노화연구 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설 구축 예산 17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동물 생육시설'은 60대 이상의 인간과 유사한 생리학·면역학적 특성을 가진 실험동물을 길러 노화연구개발에 필요한 생물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



가 추진 중인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나,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 집행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고령동물생육시설과 노화연구시설은 광주 남구를 노화치료융합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의 의의를 설명했다.

권은희 '낙하산 인사, 정피아 근절 토론회'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당 정책위원회와 24일 국회에서 '정치적 낙하산 인사, 정피아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시리즈 1탄 법피아 근절(7월 18일), 2탄 관피아 근절(8월 11일)에 이어 3탄 정피아 근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사기준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기본



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자들은 정치인의 공기업 회전권 인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과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책임 강화, 임원 심사에서 전문성 기준의 구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김상화, 송기석, 이용주, 장정숙,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

지방정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강원호·부의장 남광인

광주시 남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강원호 의장과 국민의당 남광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남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강원호 의원을 의장으로, 남광인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았다.



안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이혜자 전남도의원, 목포대 행정학 박사학위

전남도의원 이혜자 의원이 25일 목포대에서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의원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이번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당선 이전부터 행정학 부문에 관심을 가져온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전남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인재대 겸임교수를 지낸 이 의원은 도의회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남기연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종희기자 golee@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